

# 고2 문학 금성

## 1(1). 춘설 - 수능형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좁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3월(三月)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1. 위 시와 <보기>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샤갈의 마을에는 3월(三月)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바르르 띈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 ① 역설을 통해 대상에 대한 참신한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적 배경이 환기하는 심상이 시상 전개에 바탕이 되고 있다.
- ③ 대비되는 심상을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관념적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화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이 시와 <보기>의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春雨細不滴(춘우세부적) 봄비가 가늘어 방울도 듣지 않더니  
夜中微有聲(야중미유성) 밤중에 약간 소리가 나는 듯했네.  
雪盡南溪漲(설진남계창) 눈 녹아 남쪽 개울에 물이 불었거니,  
多少草芽生(다소초아생) 풀싹은 이미 얼마나 돋았는고.

- 정몽주, '춘흥(春興)'

- ① <보기>는 봄비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을 나타내고 있어.
- ② 이 시는 봄바람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의 기운을 나타내고 있어.
- ③ 이 시는 눈 덮인 산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초봄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 ④ 이 시는 이마에 느껴지는 차가움의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어.
- ⑤ <보기>는 새싹이 돋는 풍경을 상상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군.

3.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옛 피던 가지에 피엄직도 하다마는  
 춘설이 난분분(亂紛紛)하니 필 동 말 동 하여라.

- ① 이 시와 <보기> 둘 다 '춘설'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 ② <보기>는 이 시와 달리 4음보의 정형적 율격을 지키고 있다.
- ③ 이 시와 <보기>의 화자 둘 다 봄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 ④ 이 시는 <보기>와 달리 반어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이 시의 '눈'은 봄의 신선한 기운을 전달하지만, <보기>의 '눈'은 봄의 방해자로 그려지고 있다.

4. <보기>를 통해 이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꽃에서 봄 향기를 맡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다. 일상적 관습 속에서 기계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용과 같은 시인은 오히려 봄눈과 같은 겨울의 흔적을 통해 겨울옷의 옷고름에서 봄 향기를 감지한다. '새삼스레'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듯이 지용에게는 시간을 되감아 그것을 새롭게 할 줄 아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 얼음이 금 가고 파릇한 미나리의 새순이 돋고 물밑에서 꿈쩍도 않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그 섬세한 봄의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고 겨울과 봄의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마의 추위[꽃샘추위]'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활짝 열린 봄의 생명감은 '옹송거리고 살아온 겨울의 서러운 삶'을 통해서만 서로 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봄눈이야말로 겨울과 봄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봄의 시는 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용의 상상력에 의

하면 그것은 봄눈에 덮인 서늘한 멧부리에 혹은 얼음이 녹아 금이 간 그 좁은 틈 사이에 있다.

그래서 지용의 시 '춘설'은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로 끝나 있다. 달리는 자동차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우리의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 충격을 통해 비로소 달리는 속도를 느낀다. 봄눈이 바로 봄의 브레이크와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봄눈은 밤낮 내리는 것이 아니잖는가. 그러므로 꽃샘이나 봄눈을 통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겨울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꺼운 솜옷을 벗고 도로 추위를 불러들여야 한다. '새삼스레', '철 아닌', '도로'와 같은 일련의 시어들이 환기하는 것은 시간의 '되감기'이다. 그래서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용의 역설(逆說) 속에서 우리는 스위스의 산골짜기 깊숙이 묻혀 살던 '드퀸시'의 오두막집을 상상하면서 쓴 '보들레르'의 글 한 줄을 생각하게 한다.

시인의 방과 그 나날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문 열기' 이전의 닫혀 있던 방, 햇옷을 입고 있는 좁은 공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이전, 지용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옹송거리고' 사는 겨울 시간이다. 바깥이 추울수록 그 내부의 공간은 한층 더 아늑하고 따뜻하며 눈보라가 치는 긴 밤일수록 그 시간은 더욱 고요하고 천천히 흐른다.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닫힌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열고 바깥세상과 '이마받이'를 하는 행복한 충격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다.'라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느끼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소원을 품게 된다. 그러한 소망의 원형이 바로 '봄눈'이며 '꽃샘추위'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용에 의해서 한국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봄의 휘방꾼'이었던 '봄눈'과 '꽃샘'이 봄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시학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 ① 시에서 화자가 두꺼운 솜옷을 벗는 이유는 추위를 통해 봄의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서야.
- ② 만일 시인이 탁 트인 공간에 살고 있었다면 1연에 나오는 '이마받이'를 할 수 없었을 거야.
- ③ 시인이 '도로 춥고 싶다'고 말한 것은 겨울로 회귀하고 싶은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거야.
- ④ 시인은 물밑에서 꿈쩍도 않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모습을 통해 봄의 도래를 감지하고 있어.
- ⑤ 시인 '정지용'은 한국 시문학사에 남을 만큼 '봄눈'에 대해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한 셈이군.

5. <보기>는 ㉠을 이해하기 위해 탐구 활동을 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꽃 피기 전’ → 양력으로 2월 18일 쫓 되는 “우수”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 ①

↓

‘철 아닌 눈’ → 완전한 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눈이 내릴 한겨울이 아니라는 생각 …… ②

↓

‘햇웃’을 벗는 행위 → 추위를 통해 봄을 맞이해야겠다는 생각 …… ③

↓

‘햇웃 벗고 춥고 싶다’ → 고통스러운 겨울이 빨리 가고 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 ④

↓

유사한 발상 → 자전거를 타고 빨리 달리다가 속도감을 확인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 …… ⑤

6. 이 시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견우직녀도 이 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석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몇 송이 땅에 묻고 돌아오네.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 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베옷 한 벌 해 입혔네.  
당신 손수 베틀로 짠 옷가지 몇 벌 이웃에 나눠 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당신 나중 흠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는 길임을 알게 하네.  
내 남아 발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도종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 ① ㉠은 ㉡와 달리 화자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는 ㉠과 달리 시적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과 ㉡는 모두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과 ㉡는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과 ㉡는 모두 자연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어니젠가: 어느샌가.  
\*가제: 방금. 막.

- 백석, 「수라(修羅)」

- ①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②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통해 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어조의 사용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8. <보기>의 ㉠, ㉡와 관련지어 이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춘설(春雪)	
㉠ 춘(春) : 봄	㉡ 설(雪) : 눈

- ① '우수절(雨水節) 들어 / 바로 초하루 아침'은 ㉠에 접어드는 때임을 밝힌 것이군.
- ② '새삼스레'에는 ㉡를 맞이하게 된 것이 뜻밖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군.
- ③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에는 긴 겨울을 보내고 ㉠를 맞이하는 감회가 드러나는군.
- ④ '미나리'와 '고기 입'은 ㉠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이겠군.
- ⑤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에는 ㉡를 그리워하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군.

9. 이 시와 <보기>의 '눈'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샤갈의 마을에는 3월(三月)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바르르 댄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三月)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① 이 시와 <보기>의 '눈'은 모두 촉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 ② 이 시의 '눈'은 정적 이미지, <보기>의 '눈'은 동적 이미지이다.
- ③ 이 시의 '눈'은 긍정적 이미지, <보기>의 '눈'은 부정적 이미지이다.
- ④ 이 시의 '눈'은 차가운 이미지, <보기>의 '눈'은 부드러운 이미지이다.
- ⑤ 이 시의 '눈'이 '겨울'을 상징하는 반면 <보기>의 '눈'은 '봄'을 상징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움짚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10. ㉠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이미지가 사용된 것은?

① 해와 하늘빛이 / 문둥이는 서러워 // 보리밭에 달 뜨면 / 애기 하나 먹고 //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 서정주, “문둥이”

②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 늙은 비애(悲哀)다. / 푸줏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 시인(詩人) 릴케가 만난 / 슬라브 여자(女子)의 마음속에 갈았은 / 낫쇠 향아리다.

- 김춘수, “나의 하나님”

③ 쪽문을 열면 더욱 쓸쓸해진 개울 그늘과 / 문득 죽음과, 들쭉처럼 버텨길 남은 가을과 / 길이 있다면, 시간 비껴 / 길 찾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기억 못하는 두천 그런 산길에 접어들어 / 함께 불붙는 몸으로 저 골짜기 가득 / 구름 연기 첩첩 재워놓고서

- 김명인, “너와집 한 채”

④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 해마다 봄바람이 남(南)으로 오네. //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 어느 것 한 가진 들 실어 안 오리. / 남촌서 남풍 불제 나는 좋데나.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⑤ 떠받는 명고(名鼓)인데 진가락을 온통 잊으 / 떡궁! 동중정(動中靜)이오 소란 속에 고요 있어 /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 가오 // 자네 소리 하게 내 북을 치지

- 김영랑, “북”

11. 다음은 이 시의 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평론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이 시에 나타난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자료 1** : 이 시인은 사물과 정서를 감각적인 언어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시에서는 감정까지도 감각적으로 빚어져 독자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② **자료 2** : 그는 감각적 표현을 율격 있는 언어로 응축시켜 향수를 노래하였다. 그의 시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고향을 의식의 세계로 떠올리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③ **자료 3** : 그의 시어들은 탁월한 조탁 능력에 힘입어 세련미를 보여 준다. 특히, 모국어 전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강하여 그의 시에는 적절하게 살려 쓴 방언, 고어, 그리고 새로운 조어까지 눈부신 빛을 발한다.

④ **자료 4** : 그의 시 가운데에는 동양적 세계에서 노니는 관조적 서정을 노래한 것도 한 무리를 이룬다. 동양의 서정을 주제로 한 다들 시인들의 시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러한 서정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특하고도 참신한 이미지로 표현해 냈다는 점이다.

⑤ **자료 5** : 이 시인은 서구시를 따르던 당대의 시적 유행을 넘어서서 우리의 오랜 시적 전통인 산수와 풍경을 읊은 시 세계를 독창적인 현대어로 재창조해냄으로써 우리 현대시의 성숙에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12. <보기>는 이 시를 감상한 후 이를 발표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들이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끼리 묶인 것은?

<보기>

(1) 시적 상황의 변화 : 추운 겨울 → 새봄 ..... ㉠

(2) 화자의 심리 변화 : 놀람 → 서러움 → 후회 ..... ㉡

(3) 시어(구)의 함축적 의미

- 얼음, 바람, 눈 : 냉혹한 현실 ..... ㉢
- 미나리 파릇한 새순, 오물거리는 고기 입 : 새 시대의 희망 ..... ㉣

(4) 표현상의 특징

- 세련되고 섬세한 언어 구사 ..... ㉤
- 특정 음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살림. .... ㉦

(5) 다른 작품과의 비교

매화 옛 등걸에 춘절이 돌아오니  
 예전에 뛰던 가지에 뛰엄즉 하다마난  
 춘설이 난 분분하니 필동말동 하여라  
 → 위 작품의 '춘설'이 새봄의 방해꾼이라면, 이 시의 '눈'은 '새봄의 정경'이 된다.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3. 표현상의 특질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감각적 표현은 한국인의 내면적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인간의 감정까지도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시적 정서를 독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자리잡게 한다.
- ③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가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시어는 작품의 세련미를 더해 준다.
- ④ '햇웃 벗고 도로 칩고 싶어라'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직설법이 아닌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생동감 넘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⑤ '눈이 덮인 뉘뿌리',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시인은 자연 현상에 대한 경탄을 구체적 풍경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낸다.

14. 이 시와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적 제재를 형상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뺄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간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을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여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 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①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 조그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 김광섭, <산>

②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 어찌자고 잠을 깨어 /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 눈이 오는가 북쪽엔 /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③ 봄은 / 성숙해 가는 소녀의 눈빛 / 속으로 온다. // 흠날리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 / 봄은 / 피곤에 지친 춘향이 / 낮잠을 든 사이에 온다.

- 오세영, <봄>

④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 이 한밤 소리 없이 흠날리느뇨. // 처마 끝에 호롱불 아위어 가며 /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 김광균, <설야>

⑤ 바다는 /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 푸른 도마뱀때 같이 / 재재발렸다. // 꼬리가 이루 / 잡히지 않았다. // 흰 발톱에 찢긴 /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 정지용, <바다9>

15. 이 시와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연하(煙霞)로 지불 삼고 풍월(風月)로 버들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가되  
이 등에 바라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도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이 보디 도해  
이 등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몰하애

- 이황, <도산십이곡>

- ① <보기>와 달리 이 시에서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보기>와 달리 이 시에서는 화자가 처한 시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③ <보기>와 달리 이 시에서는 규칙적인 운율이 나타난다.
- ④ 이 시와 달리 <보기>에서는 화자가 처한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 ⑤ 이 시와 달리 <보기>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드러난다.

16. 이 시와 아래의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해사살 피어 / 이윽한\* 후,  
머흘 머흘 / 골을 옮기 는 구름. //  
길경(桔梗)\* 꽃봉오리 / 흔들려 씻기우고 //  
차돌부리 / 축 축 죽순(竹筍) 돋듯. //  
물 소리에 / 이가 시리다. //  
앉음새 갈히어 / 양지 쪽에 쪼그리고, //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이윽한 : 시간이 지난.  
\* 길경 : 도라지.

- 정지용, <조찬>

- ① 이 시와 <보기>는 모든 연을 2연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②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동양적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이 시는 대상에 대한 시각적 감각을 촉각적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보기>는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이 시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들을 직접 제시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7. <보기>를 읽고 [A]의 회원들이 이 시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25년 8월에 결성된 문학 단체 [A] 카프는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의 해방을 목적으로 삼는 계몽적 성격의 문학 활동을 벌였으며 반제국주의, 반식민 사상의 구체적인 표현을 중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식민지 노선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계급의식에 기초한 계급문학활동을 통해 무산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하고, 그 투쟁의식을 제고해 나아간다는 데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일제는 이러한 저항성이 있는 문학 활동을 철저히 탄압하면서 1931년, 1934년 두 차례 카프 회원들을 검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카프는 크게 위축되어 해체되었다.

- ① 박영희 : 식민지로 전락한 국토에 대해 화자의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다시 찾아온 봄에 대한 화자의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어.
- ② 김기진 : 자연을 일구며 살아가는 한 노동자의 감정을 절제된 형식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인내하는 화자의 의지가 잘 표현되어 있어.
- ③ 조영희 : 감각적 시어의 조탁을 통해 봄의 생명력을 느끼는 인간의 순수한 서정 세계를 형성하였지만 일제강점기 시기에 고통 받는 계급의 고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작품이야.
- ④ 임화 : 겨울이라는 극한 상황을 당시 억압과 투쟁하는 계급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현실의 모순을 일깨워줄 수 있는 작품이야.
- ⑤ 최승일 : ‘꿈갈기에 설어라’라는 표현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탄압으로 인하여 다시 지식인이 느낀 서러운 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어.

18. <보기>와 이 시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  
 측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측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  
 음이란다! 옷질 종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울  
 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히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 ①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풍자적 요소와 해학적 요소가 잘 어우러지고 있다.
- ③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드러내고자 했다.
- ④ 설의법과 역설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양면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19. 이 시의 ㉠과 <보기>를 비교 혹은 대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역에서 봄을 맞으나 봄인 줄 모르다가  
 아침결에 눈송이 새로 날리는 것 놀라며 보네.  
 외물(外物)의 변화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지니  
 봄날의 기운은 분명히 이 몸에 있기에.

- 최명길, ‘춘설유감(春雪有感)’ 번역

- ① <보기>와 ㉠은 공통적으로 ‘봄’의 추위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② <보기>에서 ‘춘설’은 봄기운을 방해하고 있으나 ㉠에서 ‘춘설’은 봄기운을 돋우고 있다.
- ③ <보기>에서는 상황의 변화를 중시하나, ㉠에서는 내면의 변화를 중시하고 있다.
- ④ <보기>에서는 봄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에서는 겨울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 ⑤ <보기>와 ㉠에서 공통적으로 의지보다는 상황의 변화를 중시하고 있다.

20.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신발의 진흙도 털지 않은 채  
 흐린 불빛 속에서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된 나날이었다

잠만은 편하게 잤다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들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맛있는 잠!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제일 부드러웠다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목욕탕엘 가고 싶었다  
 - 정진규, '추억 -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

- ① 반어법을 사용하여 관념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시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적 공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화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대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춘설』은 시문학파를 대표하는 정지용이 1930년대에 창작한 작품이다. 1930년대에 일본은 조선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금지해 사회적 현실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의 창작이 억제되었다. 이에 따라 문학 분야에서도 자연스럽게 순수한 인간의 정서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작품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 시문학파의 작품들이다. 시문학파의 시인들은 시어의 조탁, 음악성 등을 중시했으며, 순수 서정 세계의 표출, 시의 본질에 대한 탐구 등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 ① 이전 시대에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제재를 작품의 중심 소재로 다뤘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큰 작품이다.
- ② 봄의 도래를 반기는 화자의 자연스러운 정서를 조탁한 시어들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1930년대의 시 창작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모든 연에서 동일한 음보를 반복하고 음절의 끝소리로 유음과 비음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음악성을 중시하는 작품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 ④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순수한 서정 세계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특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 ⑤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자연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에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1930년대의 작품 경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22. <보기>와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뉘라서 사람이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고 하어요.

당신이 가신 뒤로 사랑이 멀어졌으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어요.

- 한용운, <사랑의 측량> -

- ① <보기>는 통념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구성으로 전개된다.
- ② <보기>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사랑의 양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 ③ 이 시는 화자의 시선의 수평적(水平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④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하여 봄이 도래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 ⑤ 이 시는 새삼스레 눈이 온 놀라움을 화자와 대상의 심리적 거리의 소멸로 표현한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시적 표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30년대 일본은 조선의 민족 운동과 사회운동을 금지하였다. 이 때문에 순수 지향적 예술 작품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시 문학파이다. 시 문학파는 1920년대 프로 문학과 민족주의 문학의 대립으로 인한 이념적 문학 풍토에 반발하면서 등장하였다. 시 문학파의 시인들은 감각적인 시어의 조탁과 음악성을 위주로 한 표현, 순수 서정 세계의 표출, 시의 본질에 대한 탐구 등을 주된 목표로 삼으며 1930년대 우리 문학의 한 틀을 구축하였다.

- ① 풍경을 보고 봄의 생명력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통하여 순수 서정 세계를 표출하였다.
- ② ‘옹송그리고, 오물거리느’ 등의 시어를 조탁하여 봄의 느낌을 음악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 ③ ‘서늘웁고, 빛난, 향기로워라’ 등의 감각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계절이 바뀌는 시기의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 ④ 계절이 바뀌는 시기의 이중성을 자신의 경험 안에 끌어들이므로써 세계를 자아화하는 시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였다.
- ⑤ 봄과 겨울이 섞인 모양새로 보아 3.1운동 이후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1920년대를 관통하는 상황 속에서 시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인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1. <답> ②

두 작품 모두 초봄, 또는 삼월의 눈이 환기하는 심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펼쳐 나가고 있다.

2. <답> ②

이 시에 '바람'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되지는 않았다.

① <보기>에서는 봄비의 소리를 통해 봄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이 시는 '눈이 덮인 멧부리'라는 표현을 통해 눈 덮인 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는 1연에서 '이마에 차라'라는 표현을 통해 봄의 기운을 촉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보기>는 '풀삭은 이미 얼마나 돋았는고'라는 말을 통해 봄의 도래를 새싹이 돋는 풍경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3. <답> ④

이 시에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반어법'이 아니라 모순적인 내용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① <보기>에서도 매화가 피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은 '춘설'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② <보기>는 평시조로 4음보의 정형적 율격을 지키고 있다.

③ <보기>도 '필 동 말 동 하여라'를 통해 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춘설'은 매화가 피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으로 그려지고 있다.

4. <답> ③

시인이 '도로 춥고 싶다'고 말한 것은 추위를 통해 봄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이지, 결코 겨울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다.

① 시인은 두꺼운 솜옷을 벗고 추위를 느낌으로써, 오히려 이 추위를 통해 봄의 기운을 맞이하고 있다.

② 시인이 이마받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좁은 공간에 있다가 바깥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외부와 단절된 닫힌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④ 시인은 '얼음이 금 가고 파릇한 미나리의 새순이 돋고 물밑에서 꿈짝도 앓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것'을 통해 봄의 도래를 감지하는 사람이다.

⑤ <보기>의 글쓴이는 지용에 의해서 한국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봄눈'과 '꽃샘'이 봄을 창조하는 시학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5. <답> ④

6. <답> ②

㉞는 실재하는 자연물로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㉜는 '당신'과 '나' 사이의 공간으로 '하늘과 땅의 거리'로 받아들여질 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절대적 거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반영하여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7. <답> ①

이 시와 <보기>는 모두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 시에서는 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상이 시작되지만,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등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면서 시상이 마무리된다. 한편 <보기>에서도 거미 가족들에 대한 화자의 관찰로 시상이 시작되어 화자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와 같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어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8. <답> ⑤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는 비록 아직은 좀 춥더라도 오는 봄을 어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㉞를 그리워하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우수절(雨水節) 들어 / 바로 초하루 아침'은 봄에 접어드는 절기임을 보여 준다.

② '새삼스레'는 우수도 지난 계절에 눈을 맞이하게 된 것이 다소 뜻밖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③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는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아 새로 살아나는 새 생명에 대한 반가움과 놀라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미나리'와 '고기 입'은 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9. <답> ②

이 시의 '눈'은 산을 덮고 있는 눈으로 정적이지만, <보기>의 '눈'은 날개를 달고 내려오는 눈으로 동적 이미지이다.

10. <답> ①

㉞은 공감각적 심상(시각의 후각화)이 드러난 부분이다.

① 꽃처럼 붉은 울음: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

11. <답> ②

이 시는 정지용의 후기 시 세계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 산수를 읊은 전통 시 세계를 이으면서도 시어를 세련되게 구사하여 현대시로서 모자람이 없고, 동양적 세계에서 노니는 관조적 서정을 감각적 이미지로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모국어에 현란하다 싶을 정도로 세련되게 구사한 점이 두드러진다.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움짖 아니기던’ 등이 그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첫 연에서부터 ‘먼 산이 이마에 차라’와 같은 감각적 표현은 그의 장기(長技)를 유감 없이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다. ‘파릇한 미나리 새순’, ‘오물거리는 고기 입’ 등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감각적 표현들이다. 그러나 이 시는 향수를 주제로 한 시는 아니므로 ②와 같은 자료는 이 시와 거리가 멀다.

12. <답> ②

이 시의 화자는 꽃이 피기 전 철 아닌 눈(춘설)에 ‘향기롭어라, 설어라, 도로 춥고 싶어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설어라’는 ‘겨울 지나 생명들이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꿈 같기에 설어라’고 하였으므로 지시적 의미의 서러움이 아닌 기쁨의 설움 곧 역설적 설움이 된다. ‘도로 춥고 싶어라’ 또한 ‘파릇한 새순 돋고~’에서 보듯 다시 겨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아닌 마음껏 새봄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의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자의 심리는 신선한 설렘과 감탄으로 일관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시에서 ‘얼음, 바람, 눈’은 대체로 혹독한 시련을 상징하지만, 이 시에서는 ‘얼음’만이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 새봄이 와서 얼음에 금이 가고 있고 바람(여기서는 봄바람)이 새로 따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바람’은 ‘눈(춘설)’과 함께 봄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③도 적절하지 못하다.

㉔ 전체적으로 말이 길지 않고 깔끔하며, 언어 구사가 섬세한 부분(미나리 파릇~오물거리는)도 보인다.

㉕ ‘-라’음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3. <답> ①

14. <답> ③

이 시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을 맞이하는 설렘을 노래하고 있고, <보기>는 봄을 기다리는 심정, 그리고 더디지만 마침내 다가온 봄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와 <보기> 모두 ‘봄’을 시적 제재로 삼아 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③도 봄이

오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이 시는 <보기>와 시적 제재가 동일하다.

15. <답> ②

이 시는 2연에서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보기>는 구체적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① 이 시와 <보기> 모두 자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드러난다.

③ 이 시는 자유시이고 <보기>는 연시조이므로 규칙적인 운율(4음보)이 나타나는 것은 <보기>이다.

④ 이 시는 1연을 통해 시적화자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기>는 자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이 시와 <보기>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16. <답> ④

화자의 시선은 멀리 있는 구름을 바라보다가 도라지꽃을 보고 있으므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① 두 시 모두 2행 1연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보여준다.

② 두 시 모두 절제된 간략한 시어를 통해 여백의 미와 동양적 자연풍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눈이 덮인 멧부리의 풍경을 ‘빛난 이마받이하다’라고 하여 시각을 촉각으로 전환하고 있다.

⑤ 이 시는 ‘눈’이라는 시어를 직접 제시하여 겨울이라는 배경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17. <답> ③

이 시는 일제강점 하에 쓰인 시지만 시대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역사적 사명을 강조하고 저항성을 중시하는 카프의 회원들은 ‘춘설’을 시대에 고통 받는 계급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워할 것이다.

① 이 작품은 식민지로 전략한 국토에 대한 안타까움이 등장하지 않는다.

② 이 시는 자연을 일구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④ 이 시의 겨울은 계절적 배경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⑤ ‘꿈같기에 설어라’는 겨울을 이기고 온 봄에 대한 경탄이지 시대현실에 대한 감상이 아니다.

18. <답> ③

<보기>에서 장수산은 세속적 가치와 단절되어 자연 속에 동화된 무욕의 삶을 상징하고, 이 시는 자연의 변화에 따른 기쁨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보기>와 이 시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보기>와 이 시에 풍자와 해학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이 시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에 역설법이 쓰였을 뿐이다.
- ⑤ <보기>와 이 시에 계절의 양면성으로 인한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19. <답> ②

<보기>의 시는 작가가 청나라에 억류된 시기에 창작한 작품이다. 봄에는 추위가 가시고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봄에 내리는 눈은 시련, 역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춘설은 봄기운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춘설은 봄의 생명력을 떠올리기 한다.

- ① 이 시는 추위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날이 추워 봄을 느낄 수 없음을 떠올릴 수 있다.
- ③ <보기>는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은 온몸으로 봄을 느끼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④ <보기>와 이 시 모두 봄에 대한 애착이 있다.
- ⑤ <보기>에는 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 이 시에는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20. <답> ②

21. <답> ②

22. <답> ③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봄이 온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3. <답> ⑤